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f Remarried Couples, Marital Intimacy, Marital Conflict Coping Style on Marital Satisfaction

박희정,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Hee-Jung Park(ecoecop@daum.net), Sang-Hae Byun(jm9004@svu.ac.kr)

요약

본 연구는 재혼부부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48부를 배포하였으며, SPSS WIN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혼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대처방식인 성격요인은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결과 낮은 자기분화수준은 결혼만족도와 부부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에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부부를 위한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은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고려하여 통합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중심어 : | 재혼부부 | 자기분화 | 부부친밀감 | 부부갈등대처방식 | 결혼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rital intimacy, and marital conflict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for remarried married couple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4, 2017 to April 25, 2017 for the subject remarried couples aged more then 30years living in Sooul, Gyeonggi province, chungchong province, Jeolla province and Kyeongsang province. 48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 and analyzed with SPSS WIN 21.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of the remarried couple, the more positiv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emotional intimacy and sexual intimacy as the sub-factors of marital intimacy, (-), respectively.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low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intimacy, resulting in a vicious cycle in marital conflict. And thes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of the unified construction of a marital satisfaction improvement program considering self-differentiation, marital intimacy, and marital conflict coping style.

■ keyword : | Remarried Couples | Self-differentiation | Marital Intimacy | Marital Conflict Coping Style | Marital Satisfaction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가족변화는 초혼 연령의 증가와 혼인형태의 다양화이다. 통계청 자료(2016)에 따르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8세, 여자 30.1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2.3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혼연령은 2006년 남자는 44.4세, 여자는 39.7세였으며, 2016년에는 남자 48.2세, 여자 44.0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8세, 여자는 4.3세 상승한 것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재혼인 경우는 11.4%이다[1].

이와 같이 최근 결혼 연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 30세 이상 되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10명 중에서 2명은 재혼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2]. 혼인형태의 재혼은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재혼으로 안정적인 계부모 가족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정책적 지원 미비, 전혼 후 미해결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3].

특히 재혼은 그 숫자적 증가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복지적 관심을 끄는 것은 재혼이 초혼에 비해 해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재혼가족을 초혼가족보다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불완전한 제도로 불리는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전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4][5].

Carter & Mc Goldrick, 1999[6]에 의하면 재혼은 가장 어려운 전환기로 재혼가족이 적절하게 통합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가족관계의 상실을 애도하고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구축되어야 하며, 같이 생활하지 않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유대가 재협상되어, 자녀가 갈등 없이 두 가구에서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7][8].

Bowen, 1976[9]에 따르면 부부는 자신과 비슷한 분화수준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 분화수

준이 높은 사람은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으며, 부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0][11]. 또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갈등 상황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 부부의 성격보다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해주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바탕이 된다. 이와 같이 재혼부부가 자기분화수준과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토대로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혼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갈등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연구[4][14][15]와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연구[7][16]로서, 재혼부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부부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기간 1년부터 10년 이상 30대 이상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재혼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재혼부부의 부부갈등대처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재혼부부

재혼은 사별이나 이혼 후 다시 하는 혼인을 뜻하는 것으로[14],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재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한 부부를 의미한다[17]. 재혼은 분명히 초혼과 그 성격이 다르며 복잡한 특징을 갖는다[18]. 재혼은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이고, 이것은 배우자의 전혼경력과 계자녀의 존재라는 재혼의 특성에 기인한다[7]. 초혼에 비해 재혼은 로맨틱한 동기보다는 경제적 안정, 자녀양육부담의 분담, 사회적 압력과 심리적 외로움으로부터 탈피 등 좀 더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19]. 동시에 현실적 동기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3].

재혼 부부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경험이 가족 전이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안정성이 취약하여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6]. 재혼부부들은 전혼의 해체로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감 및 우울 등과 같은 심한 정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이혼과 사별을 통한 상실에 대한 경험도 크며, 재혼의 동기 또한 경제적 안정, 자녀양육부담의 공유,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기대감도 갖는다[15].

재혼부부는 낮은 자존감과 갈등에 대한 공포 및 배우자 선택 시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배우자를 즉각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초혼부부에 비해 서로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해결 기술도 서투르다[20]. 또한 재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무기력감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8]. 이처럼 재혼(remarital)은 다양한 재혼가족유형에 따라 재혼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자기분화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는 Bowen 이론의 핵심개념으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21]. Kerr는 ‘한 개인이 사고와 정서

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라고 자기분화를 설명하였다[22]. ‘분화’는 개인적 성취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능력, 그리고 정서체계와 사고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심리 내적 능력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라 할 수 있다[12][21][22].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조화를 통해 사고와 감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객관적 사고기능을 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23].

반면에 자기분화수준이 낮으면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체계의 분화가 어려워 부부간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직면하여 폭력 등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결혼관계에 어려움이 있다[24]. 부부의 자기분화가 미분화 되어 있을 경우, 부부각자의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독립성이 발달되지 못한다고 하였다[21]. 즉,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예전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25].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 간에 적응이 잘되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친밀감

부부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26],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및 성적인 요소를 포함한다[27].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총체적인 측면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는 결혼만족도와는 다르게 부부간의 깊이 있는 관계성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존중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28].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배우자 상호간 가정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관심과 욕

구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부부관계는 보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부갈등대처방식

부부갈등대처방식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29], 또는 개인이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문제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다[30]. Bowen의 이론에 따르면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개별화되지 않고 미분화된 자아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삼각화를 통해 부부의 미분화에서 오는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시켜 자녀가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12][31].

부부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자신이 자라온 원가족 체계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32]. 우리나라 부부들은 대체로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많이 느끼며, 그밖에 경제문제, 성생활, 친가 및 인척관계, 자녀지도, 배우자의 나쁜 습관, 가사분담 등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또한 부부갈등의 원인은 정서적-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 자녀문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부부들은 서로 노력하여 적응하고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부부갈등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견고한 관계로 다지게 도와줌으로써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34][35].

5.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결과 사이의 일치정도로써 [36], 두 배우자간의 관계적 특성이며 조화로운 결혼관계의 과정을 의미하고 분석의 단위는 부부가 된다[37]. 또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38][39].

결혼만족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적응, 행복, 성

공, 질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결혼의 질, 결혼적응도, 결혼성공도, 결혼행복도 등의 용어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으로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정도 등 결혼생활의 총체적인 평가이다[40].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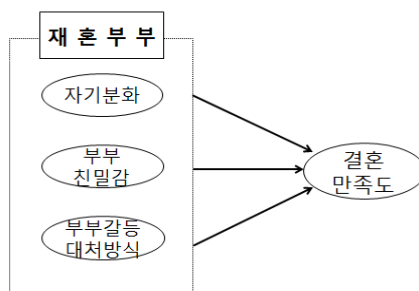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1.1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1: 재혼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하위요인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재혼부부의 부부갈등대처방식인 성격요인은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이 재혼부부이므로 설문 내용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배포는 경기도가 60.4%, 서울특별시 18.8%, 충청도와 전라도가 8.3%, 경상도지역이 4.2% 순이었다. 설문은 자발적으로 설문참여에 동의한 총 48명의 재혼부부로, 유효 설문지가 48건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48장을 배포 후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내용

3.1 자기분화

재혼부부의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분화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한 한국형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41].

전체 38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심리내적차원을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과, 대인관계 차원을 나타내는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하위 척도인 '정서적 융합'은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차원이 통합된 것이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심리내적차원의 '정서적 반응'은 9문항, '자기입장'은 8문항, 자기분화의 대인관계 차원으로서 '타인과의 융합' 영역은 7문항, '정서적 단절'은 5문항, '정서적 융합'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에 관한 모든 문항들을 역점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 정서적 융합,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은 낮은 반면, 전체 자기분화수준과 자기입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이경희(1998)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42].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친밀감 척도는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질문내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를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에게 느끼는 심리적 가까움의 정도를 말하며, 상호보완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성적 친밀감은 부부가 성을 열린 마음으로 부부관계의 증진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서로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서, 성적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3으로 나타났다.

3.3 부부갈등대처방식

재혼부부의 부부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42]를 참고로 양여진(2015)[43]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들의 갈등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서 8요인으로 구성된 3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격요인 5문항, 생활습관 및 태도 요인 3문항, 부부 관계적 차원에서 의사소통 요인 6문항, 성 생활 요인 7문항, 애정 및 친밀감 요인 5문항, 제삼자 관계적 차원에서 자녀관계 요인 5문항, 시대 및 처가관계 요인 4문항, 경제적 요인에서 경제요인 2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심각한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3.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와 이 척도의 개정판(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44]을 권정혜와 최규만(1999)[38]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를 참고하였다. K-MSI는 160문항으로 타당도를 측정하는 2개 척도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12개의 소척도로 모두 1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 중에 전반적인 불만족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를 사용하였다.

GDS는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 이혼이나 별거 등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기술하였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수정해 사용했다. 12개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9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분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표 2]와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16명(33.3%), 여자가 32명(66.7%)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나이는 30대가 4명(8.3%), 40대가 11명(22.9%), 50대가 26명(54.2%), 60대가 7명(14.6%)으로 나타났다. 본인 나이는 30대가 3명(6.3%), 40대가 17명(35.4%), 50대가 22명(45.8%), 60대가 6명(12.5%)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 1명(2.1%), 고등학교졸업이 15명(31.3%), 전문대졸업이 8명(16.7%), 대학졸업이 13명(27.1%), 대학원졸업이 10명(20.8%), 기타가 1명(2.1%)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가 9명(18.8%), 경기도가 29명(60.4%), 충청도가 4명(8.3%), 전라도가 4명(8.3%), 경상도가 2명(4.2%)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기독교가

31명(64.6%), 천주교가 2명(4.2%), 불교가 4명(8.3%), 없음이 11명(22.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재혼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만남방법은 연애가 24명(50.0%), 반중매가 13명(27.1%), 중매가 11명(22.9%) 순이었으며, 재혼형태는 혼인이 27명(56.3%), 사실혼이 21명(43.8%)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6	33.3
	여자	32	66.7
배우자 나이	30대	4	8.3
	40대	11	22.9
	50대	26	54.2
	60대	7	14.6
본인 나이	30대	3	6.3
	40대	17	35.4
	50대	22	45.8
	60대	6	12.5
학력	초졸	1	2.1
	중졸	-	-
	고졸	15	31.3
	전문대졸	8	16.7
	대학졸	13	27.1
	대학원졸	10	20.8
	기타	1	2.1
거주지역	0000시	9	18.8
	00도	29	60.4
	00도	4	8.3
	00도	4	8.3
	00도	2	4.2
종교	00교	31	64.6
	00교	2	4.2
	00	4	8.3
	없음	11	22.9
전체		48	100.0

재혼하기까지 만남기간은 10년 이상이 10명(21.3%), 1~4년이 7명(14.9%), 6~7년이 7명(14.9%), 4~5년이 6명(12.8%), 5~6년이 3명(6.4%) 순이었으며, 교제기간은 1~2년이 35명(72.9%), 2~3년이 10명(20.8%), 3~4년이 3명(6.3%)이었으며, 재혼기간은 10년 이상이 17명(36.2%), 1~2년이 8명(17.0%), 3~4년이 8명(17.0%), 6~7년이 6명(12.8%), 2~3년이 5명(10.6%), 4~5년이 2

명(4.3%), 5~6년이 1명(2.1%)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재혼관련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만남방법	중매	11	22.9	본인직업	판매·서비스직	5	10.6	
	연애	24	50.0		기타	14	29.8	
	반중매	13	27.1		무직	1	2.1	
재혼형태	사실혼	21	43.8	주부	9	18.8		
	혼인	27	56.3	배우자 자녀수	사무직	6	12.5	
재혼까지 기간	1-2년	7	14.9		공무원	2	4.2	
	2-3년	7	14.9		전문직	11	22.9	
	3-4년	7	14.9		관리직	-	-	
	4-5년	6	12.8		판매·서비스직	11	22.9	
	5-6년	3	6.4		기타	8	16.7	
	6-7년	7	14.9		무직	1	2.1	
	10년 이상	10	21.3		0명	3	6.7	
교제기간	1-2년	35	72.9		1명	14	31.1	
	2-3년	10	20.8		자녀와 동거여부	2명	21	46.7
	3-4년	3	6.3	3명		7	15.6	
재혼기간	1-2년	8	17.0	자녀와 동거		25	59.5	
	2-3년	5	10.6	비동거	17	40.5		
	3-4년	8	17.0	0명	2	4.7		
	4-5년	2	4.3	본인 자녀와 동거	1명	16	37.2	
	5-6년	1	2.1	2명	22	51.2		
	6-7년	6	12.8	3명	3	7.0		
	10년 이상	17	36.2	배우자 직업	동거	25	61.0	
배우자 직업	주부	5	10.6		비동거	16	39.0	
	사무직	3	6.4		전체		48	100.0
	공무원	1	2.1					
	전문직	13	27.7					
	관리직	5	10.6					

배우자 직업은 주부가 5명(10.6%), 사무직이 3명(6.4%), 공무원이 1명(2.1%), 전문직이 13명(27.7%), 관리직이 5명(10.6%), 판매·서비스직이 5명(10.6%), 기타가 14명(29.8%), 무직이 1명(2.1%)으로 나타났고, 본인 직업은 주부가 9명(18.8%), 사무직이 6명(12.5%), 공무원이 2명(4.2%), 전문직이 11명(22.9%), 판매·서비스직이 11명(22.9%), 기타가 8명(16.7%), 무직이 1명(2.1%)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자녀수는 0명이 3명(6.7%), 1명이 14명(31.1%), 2명이 21명(46.7%), 3명이 7명(15.6%)으로 나

타났고, 배우자 자녀 동거여부는 동거가 25명(59.5%), 비동거가 17명(40.5%)으로 나타났다. 본인 자녀수는 0명이 2명(4.7%), 1명이 16명(37.2%), 2명이 22명(51.2%), 3명이 3명(7.0%)으로 나타났고, 본인 자녀 동거여부는 동거가 25명(61.0%), 비동거가 16명(39.0%)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

2.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재혼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007	1.029		-.007	.994	
정서적 반응	.266	.274	.156	.970	.338	1.380
자기입장	.294	.256	.177	1.147	.258	1.274
타인과 융합	-.160	.243	-.117	-.658	.514	1.672
정서적 단절	.404	.199	.326	2.037*	.048	1.367
정서적 융합	.152	.315	.084	.482	.632	1.616
F=2.250(p<.1), R2=.211, adjusted R2=.117						

* p<.05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2.250(p<.1)으로 유의수준 0.1 기준에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은 .211로 21.1%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서적 단절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6, p<.05). 즉 정서적 단절에 대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 반면에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융합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2.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 하위요인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표 4]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4.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574	.365		-1.574	.123	
인지적 친밀감	.220	.170	.176	1.294	.203	2.631
정서적 친밀감	.368	.165	.300	2.236*	.030	2.552
성적 친밀감	.523	.145	.446	3.607***	<.001	2.169

F=32.594(p<.001), R2=.690, adjusted R2=.669

* p<.05 *** p<.001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32.594(p<.001)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은 .690으로 69%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성적 친밀감($\beta=.446, p<.001$), 정서적 친밀감($\beta=.300, p<.05$)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비해 인지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2.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에서는 재혼부부의 부부갈등대처방식인 성격요인은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표 5]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5.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6.062	.259		23.399	<.001	
성격요인	-.437	.127	-.449	-3.455**	.001	3.688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108	.091	-.122	-1.185	.243	2.317
의사소통요인	-.139	.155	-.135	-.897	.375	4.942
성생활요인	-.032	.116	-.035	-.280	.781	3.513
애정 및 친밀감요인	-.133	.127	-.136	-1.046	.302	3.691
자녀관계요인	-.084	.111	-.089	-.759	.452	2.969
시택·처가 관계요인	-.070	.108	-.066	-.652	.518	2.232
경제요인	-.036	.095	-.039	-.377	.708	2.309

F=22.383(p<.001), R2=.821, adjusted R2=.784

** p<.01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22.383(p<.001)으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은 .821로 82.1%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성격요인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9, p<.01$). 즉 성격요인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생활요인, 애정 및 친밀감요인, 자녀관계요인, 시택·처가 관계요인, 경제요인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표 6]과 같이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59.763(p<.001)으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은 .803으로 80.3%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부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4,240	1,063		3,990	<.001	
자기분화	.032	.170	.014	.190	.850	1,218
부부친밀감	.303	.183	.223	1,657	.105	4,059
부부갈등	-.816	.156	-.691	-5,227***	<.001	3,896

F=59,763(p<.001), R2=.803, adjusted R2=.789

*** p<.0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91, p < .001$).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분화와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 > .05$).

3. 연구대상자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 대처방식에 관한 재혼부부의 심층인터뷰

1. 재혼부부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설문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자기분화수준과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관찰하였다.

1.1 심층면접조사 및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혼한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재혼부부로, 35세 이상부터 62세 미만의 부부이다. 재혼가족 구성(즉 배우자 한 쪽의 전혼경험과 자녀가 있는 부부, 두 배우자 모두 전혼경험과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은 복잡가정, 혼합가정 모두를 포함하였다.

1.2 연구대상자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재혼가족의 특성상 설문지의 내용과 같이 집단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재혼부부

의 결혼생활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질문, 재혼부부가 결혼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대한 태도와 생활 등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00모임의 재혼부부 4쌍과, 지인의 소개를 받은 개별 인터뷰 4쌍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적 형태의 질문지를 통한 면접이었고, 면접 횟수는 총 4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회기마다 면접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재혼부부 총 8쌍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적 특성 자료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가족적 특성

구분	나이	부부	직업	전혼 해체 사유	재혼 기간	학력	자녀	자녀 연령	동거 여부
1	62	남편	관리직	사별	만1년	대졸	딸2 아들1	20대 ,30대	비동거
	62	아내	전문직	이혼	만1년	대졸	딸1 아들1	20대 ,30대	비동거
2	39	남편	회사원	초혼	만8년	대졸	없음		
	51	아내	판매직	이혼	만8년	고졸	딸1	고 등 학생	비동거
3	57	남편	공무원	이혼	만6년	대졸	아들2	20대 , 고 등 학생	비동거
	58	아내	서비스 업	이혼	만6년	고졸	딸2	20대	동거
4	58	남편	금융업	사별	만2년	대졸	아들2 딸2	20대	비동거 동거
	52	아내	서비스 업	이혼	만2년	전문 대졸	딸1	20대	동거
5	50	남편	개 인 사 업	이혼	만8년	고졸	아들1 딸1	10대	비동거
	52	아내	보험업	이혼	만8년	대졸	딸2	20대	동거
6	50	남편	건축업	이혼	만6년	고졸	자녀 없음	없음	
	48	아내	어 린 이 집 교사	이혼	만6년	전문 대졸	아들2	20대	비동거
7	47	남편	회사원	사별	만 1 0 년	고졸	아들1	10대	동거
	38	아내	유통업	이혼	만 1 0 년	고졸	아들1	10대	동거
8	52	남편	공무원	이혼	만9년	대졸	아들1 딸1	10대	동거
	46	아내	사회 복지사	이혼	만9년	전문 대졸	아들1	20대	비동거

1.3 심층면접

a. 자기분화

개인의 자기분화 정도는 정서적 기능과 지적기능 사이에 융합이나 분화의 정도를 뜻하며, 두 개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융합된 상태의 사람은 정서적 반사행동(Emotional Reaction)을 하기 쉽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45]. 남편4 사례는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할 때 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분화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자기분화에 대한 심층면접사례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과 원 가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융합된 채 쉽고 낮은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1 자기분화 사례

남편1) 재혼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서먹하다. 사별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후회 된 마음이 있었다. 그 전엔 일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재혼은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반응이 없으니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아내1) 전혼 때 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많다. 그런 얘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는데, 남편이 자주 물어보니 불편하다. 남편이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표현할 때, 잘 받아주지 못하는 내가 오히려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색하고 불편하다.

남편2) 내가 지금도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날 때 사내 녀석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혼났다. 새어머니에게 혼날 때는 반대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서 지금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가 뭐라 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잘못했다고 또 잔소리를 들을 까봐 말을 잘 안한다.

아내2)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직장문제로 어렸을 때 자주 이사를 하였다. 초등학교도 전학을 수시로 다녔다. 그때마다 뭔가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을 모아야 했다. 지금도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

지금도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도와주려고 하고, 남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내가 다 해버린다. 불안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다 해버린다.

남편3) 밖에서 못하는 얘기를 집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정치 등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였다. 집에선 아내와 어떤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나는 옳고

그림의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이 정도로 싫어하는 줄 몰랐다.

아내3) 어렸을 때는 없는 집의 딸들로 태어나 힘든 일 하며 지금 까지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 남편이 다른 젊은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늙었다고 말했다고 할 때, 집에 와서 다른 사람 비난할 때, 정치 얘기를 할 때, 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남편4) 아버지가 5살 때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 지금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눅이 들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은 생각으로 어색하다. 아내와 싸움을 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심한 욕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후회를 한다.

아내4)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구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다. 그런데 남편이 외모로 비난을 하면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고 돼지가 된 것 같다. 외모에 대해 전부인과 자주 비교한다. 그럴 때마다 분노가 올라온다.

남편5) 전혼 자녀는 애들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기초적인 양육비만 제공을 한다. 미안한 마음이다. 아내와 아내의 딸 2과 같이 사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의 딸들이 공격한다. 그리고 아내는 '뚝' 하면 아프다고 한다. 결혼해서 아프게 된 것이라 하는데,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특하면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게 내 탓인지?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나는 병자하고 산다. 답답하고 무거운 것은 싫다.

아내5) 남편은 자기 자식 양육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잘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라고 하니 겨우 주는 것 같다. 자기 밖에 모른다. 대학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아르바이트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경제적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고 다녔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친구들이 모른다. 친구들은 다들 좋은 곳에 시집가고 여유 있게 사는데 내가 보험을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볼까봐 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실체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실망할까 봐 잘 드러내지 않는다.

남편6) 나는 장손으로 태어나 장손의 이미지에 맞게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다. 어려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 했다. 전혼에서는 아이가 없었다. 지금의 아내에게 아들이 둘 있어서 집안의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도 재혼은 잘 해보고 싶었다. 장손이어서 대를 이어야 했는데 아이는 안 생기고 아내는 교회에 빠져 산다. 나는 나를 너무 구속한다.

아내6) 나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내가 헌신하면

남편이 나에게 돌아 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술집에서 여자와 있다고 전화하면 나는 술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히려 꼴물을 타서 주기도 했다. 한번은 내연녀와 남편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여 제발 나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경찰이 저를 내연녀인 줄 알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제가 남편을 어떤면에서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그게 힘든가봐요.

남편7) 아버지는 무책임한 가정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간의 갈등이 되었고,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내겐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결혼도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했지요. 전부인 예겐 너무 가난해서 못해줘서 미안했죠. 그래서 지금의 아내에게 현신을 하면 아내는 나에게 잘 해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게으르고 모든 면에서 의존적이에요. 아내가 아니라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잘 해주면 아내도 잘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내7) 남편은 내게 말을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나는 남편의 이런 표현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 해요.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 인줄 알았지요. 남편이 또 나갈까 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만 들어요. 내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불안해요.

남편8)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내아이처럼 강하게 키웠는데 그것이 '종합 탁'이 되어버렸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모두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내8) 나는 내 성격이 쿨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 또 상처 받지 않으려고 일부터 쿨 한척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헤어지면 상처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떠날까 봐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아빠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고 엄마는 우릴 버리고 떠났거든요.

b. 부부친밀감

재혼부부는 초혼부부와는 달리 부부하위체계가 부모하위체계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두 체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부부체계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 자녀 또한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재혼부부의 친밀감이 재혼부부의 안정된 재혼을 유지할 수 있다.

종교, 취미, 가치관이 같은 부부의 사례는 남편1, 아내1, 남편2, 아내2, 남편3, 아내3, 남편4, 아내4 등이 다.

종교와 취미, 봉사활동 등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남편1, 아내1의 사례는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나타냈다. 반면에 정서적 갈등이 있으나 성적 친밀감이 있는 사례는 남편3, 아내3이다. 취미, 가치관, 종교가 같은 사례는 남편4, 아내4로, 정서적 친밀감은 부족하나 인지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6, 아내6의 사례는 부부사이가 좋을 때에 같은 취미 생활을 추구하였으나, 부부사이가 소원해 지면서 친밀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친밀감 심층면접사례를 종합하면 재혼부부는 전혼의 해체과정, 각기 다른 성격과 환경, 자라는 성장 과정은 다르지만 부부가 같은 종교, 같은 취미, 같은 가치관, 성적 친밀 등의 연결고리가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1 부부친밀감 사례

남편1) 종교가 같아요. 서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어린 시절도 비슷해요. 여행도 자주 다니며 서로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재혼하고 같은 봉사하면서 더 친숙함이 생기네요.

아내1)심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앞서가는 면이 불편하지만, 이혼하고 재혼을 한 것에 대해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2) 신앙이 같고 전공도 비슷해요. 그래서 낮에는 같이 대화도 하지만 저녁에는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각방을 쓰며 잘 만큼은 자유롭게 자고 있어요.

아내2) 공연 연출과 연극을 해요. 나이 먹은 나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남편은 젊고 저는 나이가 많아 갱년기도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는데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남편3) 혼자서 자는 것이 불편하지요. 부부가 함께 잠을 자야 안정감이 들어요. 서로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내3) 남편이 옆에서 자면 편안해서 잠을 잘 자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전부인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생활 그만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남편에게 무엇인가? 하는 존재감에 의문이 생겨요.

남편4)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비슷해요. 대화를 할 때는 잘 통하는 점도 있고 서로 배울 점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집중력

이 뛰어나요. 우리부부는 싸울 때면 아주 심각한테 성적인 부분이 맞아 그나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4) 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구요. 다른 정서적인 면과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달라서 다른 것이 많아요.

남편5) 결혼 초기에는 동적인 활동을 좋아해서 여행도 잘 다니고 등산도 좋아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하면 의심하고 힘들게 하니깐, 마주하기 싫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아내5) 재혼하고 섬유통증이 생겼을 때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짜증을 내고 싫어해요. 예전엔 좋았을 때 여행도 잘 다녀왔지요.

남편6) 아내와 같이 있으면 답답해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음은 많이 멀어졌죠.

아내6) 재혼 생활이 만족하지 않아서 신앙에 의지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께 자문도 구하구요. 참으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 해 주세요. 저희가 주말 부부인데 요즘 들어 남편이 그래도 꼬박꼬박 와요. 남편이 제가 하는 것에 터치하지 않아요.

남편7)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아 가족과 시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쉬는 날이면 가족과 여행을 많이 했지요. 예전에는 아내와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않아요. 마음이 멀어지니 아내를 대하는 것이 어색해요. 저희가 성적인 친밀감은 좋았었는데 제가 불편해서 좀 멀리하고 있어요.

아내7) 남편에게 맞추려니 답답해요.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남편이 각방을 쓰고 있으니깐 더 불안해요. 예전에는 성적친밀감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깐 불안한 마음이 더 들어요.

남편8) 오랜 동안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집에서 출퇴근하니깐 편안해요. 아내와 서먹한 것도 있었는데 안정감이 있어요. 아내와 취미는 서로 다르지요. 저는 주로 역동적인 것을 좋아해요. 글라이더, 승마 등을 좋아합니다.

아내8) 남편이 집에 오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융통성이 없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다. 아이들 혼자서 챙기는 것은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편해요. 주말이면 남편과 각자 생활해요. 서로 취미가 다른 것 인정해요. 서로 존중해 주고 맞추자고 하지 않아요.

c. 부부갈등대처방식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보다 많은 갈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계 자녀 문제, 경제문제, 부부문제, 문화적 이질감, 세대차이 등의 갈등 요소가 있다. 재혼부부의 갈

등은 전혼관계에서 경험한 전배우자와의 비교되는 행동, 갈등대처방식, 갈등상황과 연결되어 재혼부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내2, 남편3, 남편4, 아내5, 남편6 사례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침묵을 하거나, 갈등상황 자체가 싫어서 회피를 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2, 아내4, 남편5 사례는 부부갈등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대처방식 심층면접사례를 종합하면 재혼부부 모두 전혼에 대한 상처와 불안으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발생되면 관계의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비난, 공격, 회피, 경멸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1 부부갈등대처방식 사례

남편1) 재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것이 많다.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이 됨.

아내1) 전혼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오래 살아서 억압된 것들이 많아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혼 배우자 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2) 아버지는 이혼도, 재혼도, 삼혼도 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한테 한 번도 물어 본적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욱' 할 때가 있어요. 통제가 안 되지요. 그러곤 후회 한다.

아내2) 나는 남들이 원하기도 전에 먼저 그 일을 다 하려고 해요. 갈등이 싫고 눈치 보기도 싫어서 먼저 일을 만들고 해결해요. 아이를 유학 보낸 것도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도피성 유학을 보냈어요.

남편3) 부인이 자기 얘기만 저렇게 오해를 가지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 싫어져요. 자기 말만 해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아내3) 남편은 몇 년 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늙었다고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제 나는 참는 것이 싫어요. 힘들어요. 몇 년 동안 말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정치 얘기하는 것 모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예요. 남편은 전 부인에게 미련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4) 나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애들 엄마는 그렇지 않

았어요. 내 앞에서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살림도 깨끗하게 잘 했어요. 나를 잘 챙겨 주었지요. 오로지 나에게만 잘 했지요. 애들에겐 잘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지요. 싸울 때 그만하자고 하면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애들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아내4) 아내로 인정하기보다는 전부인의 대체 자가 될 만한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들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해요. 내가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을 때 비난을 해요. 수용적인 언어나 지지의 언어는 없어요.. 이러려고 재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 감정이 올라와 끝까지 남편과 싸우게 되요.

남편5) 싸울 때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손으로 살짝 스친 것인데 '특'하면 경찰을 불러요 그리고 저번에도 폭력을 켜게로 그 이유로 돈 삼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제는 대화하기 무섭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호랑이가 되었어요.

아내5) 남편에게 잘 해줬어요. 밖에서 좋은 옷 사다 입히고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면 기분이 상대적으로 좋았지요. 그랬는데 내가 사준 옷 입고 다른 년 하고 놀러 다닌 것이예요.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지요. 그래도 남편 당노가 있으니 걱정이 되요. 지금까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더니 섬유근육통이란 병이 생겼어요. 통증이 생기면 1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른 유부녀들과 같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남편은 병예요.

남편6) 아내는 완벽주의 같아요. 자기 틀에 맞춰 나를 힘들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비난해요. 집사람이 교회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지요. 종교는 자유니까. 내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사업이유로 다른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낼 때가 많지요.

아내6) 종손인데 남편은 애가 없지요. 시댁에서 애를 원하는데 그런 나는 이미 아들이 있고 시댁에서 나보러 나가달라고 해요. 다른 여자를 통해 자손을 봐야 한다고 해요. 남편이 예전엔 매우 심하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도 외주지는 않지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7) 아내는 게을러요.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정식구에게 살림을 맡기고 처갓집은 우리 집 일에 간섭이 많아요. 이번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처갓집에서 앞장서서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나도 내 생각을 아내에게 전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요.

아내7) 남편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니까 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떠날까봐 불안해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자꾸만 남편의 눈치를 살피게 되요.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요.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재혼부부의 실생활적인 면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기분화적인 면에서 환경과 타인의 관계에서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친밀감이 부부 상호 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갈등대처방식에서 원 가족과의 미해결과제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은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만족도는 자기분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370$), 자기분화의 하위항목인 정서적 반응($r=.294$), 정서적 단절($r=.38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입장, 타인과 융합, 정서적 융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36][43][45][46]의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성장과정 가운데 두 핵가족의 다른 문화와 역사가 존재하는 재혼은 초혼과는 다른 전혼을 통한 결혼 경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배우자와의 환경이 비교 대상이 되어 재혼 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의 심층면접내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기분화수준이 낮아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만족도는 부부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825$), 부부친밀감의 하위항목인 인지적 친밀감($r=.709$), 정서적 친밀감($r=.735$), 성적 친밀감($r=.772$)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심층면접에서도 재혼부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신체적 증상, 사회 심리적 부적응, 성문제에 대하여 부부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888$), 부부갈등의 하위항목인 성격요인($r=-.859$), 생활습관 및 태도요인($r=-.605$), 의사소통요인($r=-.821$), 성생활요인($r=-.738$), 애정 및 친밀감요인($r=-.757$), 자녀관계요인($r=-.729$), 시댁·처가 관계요인($r=-.562$), 경제요인($r=-.513$)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폭력이나 비난과 같은 비효과적인 언어적·비언어적 갈등대처방식은 오히려 부부간에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부부갈등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4 사례에서는 남편의 경우 이전 결혼에서 형성된 가족체계를 옹호하기 위해 폭력과 욕설을 사용해왔고 부인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난, 지적, 간섭과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7 사례에서는 본인의 의지, 배우자의 지지, 전배우자와의 단절, 부부간의 정서적 동질감을 나타냈다. 남편5, 아내5 사례에서는 초혼과 재혼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낮은 결혼만족도, 친족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균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갈등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기분화는 부부친밀감($r=.422$)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79$). 부부친밀감은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862$).

또한 심층면접내용을 종합해볼 때, 자기분화수준과 부부친밀감 하위영역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대처방식의 성격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혼부부를 위한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은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재혼부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편중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인 재혼부부는 고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며, 만남에서 재혼기간은 10년 이상이 36.2%였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재혼부부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재혼기간 1년부터 10년 이하 30대 이상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고, 부부친밀감 하위영역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요인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재혼기간 15년 이상의 50대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결과, 2016.
- [2] 노명숙,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4권, 제1호, pp.169-175, 2013.
- [3] 김연옥,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보호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pp.183-202, 2012.
- [4] 김효순,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새부모·새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군

- 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262-280, 2015.
- [5] J. Gosselin,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1, No.2, pp.108-123, 2010.
- [6] E. Carter and M. McGoldrick, eds.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3rd ed.* Boston: Alyn and Bacon, 1999.
- [7] 김유정, "재혼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실천모형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4호, pp.147-161, 2012.
- [8] E. B. Visher, J. S. Visher, and K. Pasley, *Remarriage families & stepparenting*: Walsh, F.(2003). *Normal family process: Growing diversity & complexity*, 3rdEd. The Guilford Press, 2003.
- [9] 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s.),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1976.
- [10] D. Patton and E. M. War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제10권, 제3호, pp.201-206, 1984.
- [11] 유희남, 김영희,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제3호, pp.141-158, 2011.
- [12] M. Bowen,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78.
- [13] 조유리, 김경신,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제2호, pp.1-21, 2000.
- [14] 김형민, 이은경,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23권, 제2호, pp.243-269, 2016.
- [15] 김효순, 하춘광,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37-168, 2011.
- [16] 변복수, 박승민, "재혼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3권, pp.721-748, 2015.
- [17] L. K. White and A. Booth,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0, pp.689-698, 1985.
- [18] G. Spanier and F. Furstenberg,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D. Steinmetz(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 Plenum, pp.419-432, 1987.
- [19] L. H. Ganong and M. Coleman, "Preparing for Remarriage: Anticipating the Issues,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Vol.38, No.1, pp.28-33, 1989.
- [20] J. Farrell and H. Markman,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the etiology of marital distress: The example of remarital couples*. In R. Gilmour & S. Duck(Eds.), *The emerging field of personal relationship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pp.251-263, 1986.
- [21] M. E. Kerr and M. Bowen,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1988.
- [22] M. E. Kerr,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Ph.D. Dissertation*,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1978.
- [23] E. A. Skowron and M. L. Friedlander,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3, pp.235-246, 1998.
- [24] 권정란, 이인수,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제1호, pp.35-56, 2006.
- [25] 박형원, "기혼 성인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영향요

- 인: 원가족 경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184-194, 2015.
- [26] 박수진, 이인수,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제23권, 제2호, pp.381-400, 2015.
- [27] J. H. Brown and C. S. Brown,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New York: Brooks/Cole, 2002.
- [28] 박봉순, 김영희,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9호, pp.1-11, 2010.
- [29] E. Pearlin and M. Schooler, *Integrating feminist theory and practice*, Feminist Perspectives, 1988.
- [30] 안창현, 김진이,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성·적응성과 부부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6권, 제2호, pp.95-114, 2008.
- [31] 김경주, 김영혜,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3호, pp.93-112, 2015.
- [32] J. Wallastein, *The good marriage How and why love lasts*, New York: Houghton Muffin, 1995.
- [33] 최규련,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40-152, 1994.
- [34] J. H. Grych and F. D. Fincham,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Vol.64, pp.215-230, 1993.
- [35] 조지용, 박태영,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제2호, pp.41-62, 2011.
- [36] R. A. Lewis and G. B. Spainer,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Nye, I., & Re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Z (New York NY : Free press), pp.268-284, 1979.
- [37] G. B. Spanier and R. A. Lewis,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No.4, pp.825-839, 1980.
- [38] 권정혜, 채규만,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23-139, 1999.
- [39] 임나현,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30-240, 2016.
- [40] 신현정,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41] 정혜정, 조은경,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개발과 타당성에 관한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제15권, 제1호, pp.19-46, 2007.
- [42] 이경희,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43] 양여진, *중년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44] D. K. Synder, “Multimensiona assesment of martial satisfaction,” *Ju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1, pp.813-823, 1979.
- [45] 현정희, *Bowen과 대상관계 이론을 통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6] 정재완,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적, 정서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제17권, 제1호, pp.1-21, 2016.

박 희 정(Hee-Jung Park)

정회원



- 2008년 8월 :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청소년 상담학석사)
- 2017년 5월 : 서울벤처대학원 사회복지상담학과(박사과정제학)

<관심분야> : 재혼부부 및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사회복지

변 상 해(Sang-Hae Byun)

증신회원



- 2003년 :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이사장
- 2007년 : 백석대학교 상담학박사
- 2006년 ~ 2017년 : (현)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교정상담